반도체·정유 쌍끌이… 상반기 수출 3000억달러 '사상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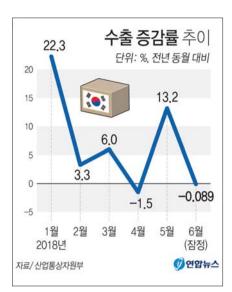
월 수출 4개월연속 500억달러 돌파 무역흑자 63억달러… 77개월째 흑자

올해 우리나라 상반기 수출(1~6월)이 사상 첫 4개월 연속 500억 달러 돌파에 힘 입어 작년 동기 대비 6.6% 증가한 2975억 달러로 사상 최대 반기 실적을 기록한 것 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반도체·석유 외에 잘 나가는 품 목이 없어 수출경쟁력을 우려하는 목소 리도 제기되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수출은 512 억3000만 달러로 잠정 집계돼 작년 동기 대비 소폭(0.089%) 감소했다. 무역흑자는 63억2000만 달러로 77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산업부는 조업일이 작년보다 1.5일 감



소했으며 작년 6월 대규모 선박 수출 (73억7000만 달러)에 따른 기저효과로 6월 수출이 소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월별 수출은 3월부터 6월까지 4 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 품목별로는 13대 주력품목 중 석유제품(72.1%), 컴퓨터(48.5%), 반도체(39.0%), 석유화학(17.6%), 차부품(2.4%), 일반기계(1.5%), 섬유(1.2%) 7개가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111억6000만 달러로 2 개월 연속 1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자동차는 해외 재고 조정과 현지 생산 확대 등으로 지난 2월부터 5개월 연속 하 락세다. 디스플레이는 중국의 생산 확대 로 LCD 단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으며 무 선통신기기도 수요 정체와 경쟁 심화로 수출이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중국(29.8%), 인도 (17.0%), 일본(11.1%), 미국(7.6%), 유럽 연합(1.4%) 등이 늘었다. 중국 수출은 20 개월 연속 증가하며 역대 2위를 기록했고 일본 수출도 8개월 연속 증가했다.

미국은 수입규제 영향으로 철강과 가

전 수출이 줄었지만, 자동차와 일반기계, 반도체 등 수출이 증가했다.

6월 무역흑자는 작년보다 43.7% 증가 했지만, 상반기 전체로 보면 28.8% 감소 했다

6월 수입은 449억1000만 달러로 작년 보다 10.7% 증가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원유 수입, 발전용 수요 증가에 따른 액화 천연가스 수입, 국내 컴퓨터 생산확대에 따른 컴퓨터기억장치 수입 등이 크게 늘 었다

한편, 일각에선 지난 5월 반등한 수출 이 6월에 다시 주춤하면서 수출이 하락세 에 진입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반도체 편중과 자동차·선 박을 비롯한 주력 산업 부진 등 수출구조 의 취약성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 다

올해 수출 증가율을 월별로 보면 1월 22.3%, 2월 3.3%, 3월 6.0%, 4월 -1.5%, 5월 13.2%, 6월 -0.089%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기업경기 실사지수(BSI) 조사에서 기업들은 수출 이 전달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수출 증가율이 상반기의 6.4%에서 하반기 4.6%로 낮아 지면서 연간 5.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수출을 견인한 반도체마저 하반기에는 수요 둔화가 예상된다. 산업연구원은 하반기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상반기 42.5%보다 둔화한 15.9%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발 통상압력, 미중과 미·EU 통상분쟁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확 산,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에 따른 신흥국 경기불안 등 수출 불안요인은 하반기에 도 계속될 전망이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

"美 인사들도 232조 韓 적용에 반대"

백운규 산업부장관 미국 주요 인사들에 입장 전달

산업통상자원부는 시계가스총회 참석 차 미국을 방문한 백운규 산업부 장관이 지난 달 27일(현지시간)부터 29일까지 워싱턴 D.C에서 미 정재계 유력 인사들 을 대상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자 동차 관세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백 장관은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 장과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총 무등을만나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교역 여건이 이뤄진 상태에서 이번 조사에 대한 우려가 크다 고 설명했다.

백 장관은 양국이 원칙적으로 합의한 한미FTA 개정협상에서 자동차 분야에 대한 미국 우려를 반영한 만큼 한국 정부 의 입장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백 장관은 현대·기아자동차가 진출한 조지아주의 조니 아이잭슨 상원의원과 앨라바마주의 테리 스웰 하원의원도 만 나 한미FTA로 양국 투자협력이 확대됐 다고 강조했다.

또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관세를 부 과할 경우 부품가격 상승에 따른 자동차 수요 및 생산 감소로 해당 지역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포드, 제너럴모터스(GM)와 피아트크라이슬러(FCA) 등 미국 3대 자동차 기업을 대표하는 자동차협회(AAPC)의 맷블런트 회장과의 면담에서는 232조 조치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지난달 29일 미국 워싱턴 D.C.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 회의실에서 조슈아 볼튼 BRT 회장(오른쪽 두번째) 등 참석자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글로벌 공급망에 의존하는 미국 자동차 업계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 으니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제시해달라 고 요청했다. 주요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 (CEO)를 대변하는 비즈니스라운드테이 블(BRT)의 조슈아 볼튼 회장에게도 양국 신뢰관계 유지를 위해 한국은 조치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우리 입장을 전달해달 라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미국정·재계인사들이 232조 조치 자체와 한국에 대한 적용에 반대했 다고 밝혔다.

스테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는 우리 우려를 민주당 리더쉽과 통상담당 주요의원과 공유하겠다고 밝혔고, 테리스웰 하원의원은 초당파적 협력을 통해 자동차 232조에 반대하는 내용의 공동서한을 준비 중이라며 향후 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조니 아이잭슨 조지아주 상원의원은

한국 등 미국의 주요 교역 파트너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고, 그렉 왈든 하윈 에너지·상무 위원장은 한미FTA를 지지하며 양국 간 무역전쟁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맷 블런트 회장은 한국이 한미FTA 개 정협상을 통해 미국 업계의 우려를 반영 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우리 입장 에 공감을 표명했다.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미국 상 무부의 자동차 232조 담당 차관보와 백악 관 국가경제위원회(NEC) 관계자를 만나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의견서를 직 접 전달했다.

백 장관은 지난달 29일 세계가스총회 폐막식에도 참석해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소개하고, 재생에너지와 함께 가스의 미래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최신웅기자

◢️️정책브리핑

7월 어식백세 수산물 '갯장어·성게' 선정

해수부, 인터넷수산시장서 할인 판매

해양수산부는 7월의 어식백세 수산물로 여름철 보양식 수산물인 '갯장어(하모)'와 바다 향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성게'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갯장어는 고단백 영양식품으로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여름철 원기 회복에 좋으 며 칼슘과 인, 철분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허약체질 개선 및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껍질에는 '콘 트로이틴'이 들어 있어 관절통증을 해소하 는 데 효과가 있고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방지하여 피부 미용에도 도움이 된다.

성게에는 비타민A가 많아 야맹증 예방

과 시력향상에 좋고, 비타민 B_1 , B_2 도 풍부해 신경세포 기능 향상에도 좋다. 또한, '바다의 호르몬'이라 하여 강장제로도인기가 좋으며 알코올을 해독하는 성분이었어 술안주로 즐기기에도 적합하다.

이달의 수산물로 선정된 갯장어, 성게는 7월 한 달 동안 수산물 전문 쇼핑몰인인터넷수산시장(www.fishsale.co.kr), 온라인 수협쇼핑(www.shshopping.co.kr)에서 시중가격보다 10~20% 할인된가격으로 판매한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7월의 지역축제 행사로 경상남도 사천시 팔포음식특화지구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17회 삼천포항 자연 산 전어축제'를 소개한다. /세종=최신웅 기자

도시학생 인성함양 위한 '농촌유학' 운영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농촌 생활·학교 체험을 통한 도시 학생들의 인성함양을 위해 '아이들이 돌아오는 농촌유학' 과정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신규 개설한 이번 교육과정으로 농촌유학센터 종사자 및 지자체 공무원 등 60여 명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한다.

이번 교육의 운영 방향은 농촌유학 교 육현장 종사자와 교육을 기획하는 지자 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본 필수교육은 물론 관계자의 인성교육에도 중점을 두 고 농촌유학 정책방향, 농촌유학의 이해 와 운영 사례, 교육 거버넌스 의미와 실천 사례 등을 교육한다.

또한 재난위기 대응 및 응급조치 요령, 교육시설 안전점검 요령, 청소년 심리상 담 이해, 회계 실무 등은 현장실무 능력 제고를 목표로 설계됐다.

서해동 교육원 원장은 "현장실무에 필 요한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해 농촌유학 종사자와 지자체 공무원의 인적역량 제 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 다

/세종=최신웅 기자

車 개소세 인하효과, 세금감소보다 크다

경기부양을 위해 시행했던 승용차 개 별소비세 인하정책의 경제적 효과가 조 세수입 감소보다 훨씬 크다는 분석이 나 왔다.

산업연구원은 1일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정책의 경제적 효과와 시사점'보고 서에서 지난 2015년 8월말부터 2016년 6 월까지 실시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5→3.5%)에 따른 사회후생 분석 결과를 분석했다

산업연구원은 "개별소비세 인하로 정부의 조세수입은 약 25억원 감소했지만, 판매가격 인하 효과로 전체 소비자 후생이 46조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개별소비세가 3.5%로 인하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해 승용차 판매 변화를 예측하고, 인하정책 시행 후의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정부의 조세

수입 변화를 종합한 사회 전체의 후생 변화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개별소비세 인하로 소비자 1인당 평균 잉여는 약 25만원 증가했으며, 잠재 시장 규모를 고려한 월별 전체 소비자 잉여 증 가액은 약 4조6천억원으로 추산됐다.

신규 승용차 판매 증가에 따라 기업의 이윤도 약 594억원 증가했다.

산업연구원은 개별소비세를 인하하지 않았다면 신규 승용차 등록이 1만8천94 대가 감소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특허청 "특허출원, 인터넷으로 하세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포함) 전자출원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인 터넷으로 손쉽게 특허를 출원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1일부터 상용 워드로 작성한 특허문서를 출원표준포맷(XML)으로 자 동 변환해주는 웹 기반 서비스(dtox.pat ent.go.kr)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원인이 출원명세서를 편 리하게 제출할 수 있게 돼 전자출원에 걸 리는 시간도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현재 전체 특허출원의 대부분인 98.7%

(지난해 20만2천57건)가 전자출원된다.

그동안 전자출원을 하려면 반드시 특 허청이 제공하는 '출원명세서작성 S/W' 를 설치해 명세서를 작성해야만 출원표 준포맷으로 변환해 제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초보 출원인의 경우 S/W 설치 와 사용법 숙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 다는 점에서 많은 불편이 있었다.

새로운 XML 변환 웹서비스는 아래아 한글이나 MS-워드로 작성해 저장한 명세 서 파일을 그대로 이용해 전자출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다. /써종=최신웅 기자